[가제: 소통 불가]

소재: 장애, 소통, 성공, 죽음, 고난

작의: 현실에서 장애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뿐이다.

**발단**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유석'은 하반신 마비로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 신세를 지고있다. 아니 병원에 갇혀있다.

**전개**

병원은 세상과 유리창 하나로 격리되어있다. 단열 유리창이라 그 유리가 더욱 두껍다. 유석은 그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관찰한다. 자신의 나이 또래 사람들을 쳐다본다. 양복을 입고 머리를 가꾸고 회사 주변을 걷고 있는 젊은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껏 꾸미고 후배들과 같이 놀고 있는 대학생들,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 연인과 함께 팔짱을 끼고 걷는 남녀, 눈이 오는 곳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거리, 과 잠바를 입고 다니는 대학생들......

병원은 유리창 하나 사이로 너무 다르다. 말이 없이 고요하고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모두 병들었고 서로에게 무심하고 기력이 없다. 유리창 하나로 분위기가 대조된다. 유석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과 격리되어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위기**

괴로워하는 유석에게 유일한 해방구는 '꿈'이다. 몸이 약해지고 움직이지 못할 수 록 강해진 것은 자유로워진 정신이다. 몸을 움직이지는 못해도 상상력은 유석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유석은 꿈 속에서 대학을 간다. 꿈 속 에서 유석은 멀쩡하다. 대학에 입학하여 동기들이 생기고 재미있게 생활을 한다. 특히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축구 동아리에도 들어간다. 술도 마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배들이 생기고 연애를 하기 시작한다. 학과 회장도 해본다.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하여 회사에서 돈을 번다. 그리고 결혼도 한다.

눈을 뜨니 다시 현실이다.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꾼 유석은 이대로 젊음을 낭비하긴 싫다. 결국 퇴원을 결심하고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간다. 유석은 마음을 다잡고 대학을 들어갈 준비를 한다. 세상에 막상 나오자 장애인들을 위한 복자 시스템이 꽤나 잘 갖춰진 것 같다. 핸드폰을 사서 sns를 해보니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바깥세상이 무서워서 못나온 자신이 겁쟁이로 느껴진다.

유석은 열심히 노력하여 장애인 전형으로 수시 1차를 통과한다. 2차 면접만 남은 상황이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붙는다고 한다. 기쁘기만 하다. 드디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것 같다.

**절정**

하지만 면접 당일 유석은 절망한다. 휠체어를 타고서는 당장 마을 버스를 타기도 힘들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손으로 이끌고 역으로 간다. 손이 부르트기 시작한다. 도착했지만 계단을 오를 수 없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계단을 오른다. 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으려 해도 혼자 표를 끊을 수 도 없다. 도움을 청해도 사람들은 장애인인 유석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하고 도움은 주지 않는다. 누군가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 게이트를 통과하고 또.....계단이다. 겨우 내려간다. 지하철이 오고 줄을 서서 타려고 했는데, 아침 출근 지하철에 자신이 탈 곳은 전혀 없다. 자리가 넉넉한 지하철을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2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다. 그는 결국 어두워진 표정으로 집으로 휠체어 방향을 튼다.

**결말**

그는 부르튼 손으로 휠체어를 직접 끌고 집으로 간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목을 두르고 있는 목도리로 목을 메고 자살한다.